太平天國時期 上海官紳의 「借兵助剿」論과 「上海會防局」의 成立

表 敎 烈*

머리말
Ⅰ. 「上海會防局」의 성립 배경
Ⅱ. 上海官紳의 借兵活動과 「上海會防局」의 成立
1. 上海官紳의 危機意識과 借兵活動
2. 「上海會防局」의 役割
3. 上海官紳의 借兵助剿論— 馮桂芬을 중심으로 —
Ⅲ. 地方大臣과 朝廷의 態度
1. 曾國藩과 李鴻章의 態度
2. 恭親王의 態度
맺음말

머리말

태평천국을 진압하기 위해 열강의 무력을 빈다는 이른바 「借兵助剿」는 일찌기 1850년대 초부터 상해를 중심으로 한 江浙의 官紳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借兵이 제기되는 기본적인 요인이 태평천국을 진압할 수 있는 청조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점에 있었지만, 1860년 10월 영불연합군에 의해 북경이 점령당하고 북경조약이 맺어질 때까지는 청조와 열강과의 사이는 적대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청조로서는 상해를 중심으로 한 이들의 「借兵」 요청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북경조약이 맺어진 이후는 국내외의 사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여 화약을 맺은 직후 프랑스와 러시아가 먼저 「助剿」를 청조에 제안해 왔고 恭親王을 비롯한 청조도 이 제안을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영국의 간섭으로 끝내 상해관신의 열망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1]

1862년 초 청조가 「上海會防局」(會防公所·中外會防局)을 인정함으로써

* 한림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1) 拙稿, 「太平天國時期 上海官紳의 「借兵助剿」論과 恭親王 — 1860년을 중심으로 —」, 『蔚山史學』 創刊號, 1987, 참조.

상해관신들의 이 차병조초 요청은 정식으로 허가되었는데, 이 문제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借兵助剿 요구가 상해관신으로부터 제기되었고 이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만큼 이들의 논리와 활동이다. 상해가 제1차 아편전쟁 이후 대외무역의 중심지가 되어 중국경제의 중심부가 되어 있었고, 태평천국의 양자강유역 점령으로 江浙지방의 지주와 신사들이 대거 이곳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이들이 蘇州와 杭州 등 강절의 요지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에 대한 방어 및 수복을 요청하며 借師助剿 요구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2] 물론 상해마저 공격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들이 극도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도 당연하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논리에 열강, 특히 영국의 무력간섭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가, 십여 년간에 걸친 태평천국과의 戰禍로 재정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국군의 경비를 일체 부담하면서까지 그들을 끌어들여야 했던가 하는 점일 것이다. 당시 曾國藩의 湘軍은 태평군과의 대결에서 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았던가. 이는 이들의 계급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터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주권의식이 어느 정도 존재했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며 넓게는 중화의식의 변화라는 점과도 관련될 것이다.

둘째, 태평군을 점차 진압해 가고 있던 湘軍의 영수 曾國藩 및 그의 휘하에 있던 李鴻章 등의 차사조초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어떠했는가 하는 점이다. 1860년 프랑스와 러시아가 조초를 제안해왔을 때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던 曾國藩이 상해관신들의 借師 승인요청에 대해 이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하는 점이다. 중국번은 차사의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외국군의 활동범위를 상해의 방어에만 국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당시 증이 처해 있던 정치적·군사적 위치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 것인지, 일부의 주장처럼[3] 軍功을 독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증국번의 조정

2) 상해의 특수한 위치 및 이들 관신의 계급적 기반에 대해서는 于醒民, 「論 "借師助剿"」, 『太平天國學刊』編委會編, 『太平天國學刊』 第 3輯, 1987 및 劉耀, 「清政府借師助剿政策之制定與推行」, 위책 등 참조.

3) 예컨대 Wang, 'China's Use of Foreign Military Assistance in Lower Yangtze Valley, 1860-1864'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제2기, 1971.

내지는 공친왕과의 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을 것이다. 1862년 초 淮軍을 이끌고 상해로 파견되는 李鴻章의 경우는 증국번과의 관계로 보아 당연히 증의 주장과 입장을 추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홍장의 경우는 상해에 파견되어 직접 그곳 관신들과 접촉하고 있었고 따라서 증국번의 경우보다는 보다 현실적 감각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상해관신에 대한 인식, 차사조초에 대한 인식, 외국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 것은 증국번과의 관계를 살피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후 그의 양무관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이다.

세째는 1860년 프랑스와 러시아의 군사원조 제안에 찬성의 뜻을 보였으나 영국의 간섭으로 포기했던 恭親王은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영국의 간섭으로 포기했던 만큼 영국의 영향권하에 있었겠는데, 공친왕과 열강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협조관계로 돌아선 것은 북경조약시 공친왕이 협상을 주도하면서 열강에 심어준 우호적 인상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보다 직접적 계기는 1861년 9월에 일어난 辛酉政變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서태후와 쿠데타를 일으킬 때 영국이 공친왕에게 북경의 안전을 보증했던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지만, 정변의 결과는 영국에게 매우 흡족한 것이었다.[4] 신유정변과 차사조초와의 관계를 밝히는 문제다. 또하나 문제는 청조가 상해관신의 蘇州·常州 등 상해 주변 지역까지 외국군의 활동을 기대한 상해관신의 입장과 상해의 방어에만 국한시키려는 증국번의 주장과의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택했는가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강이 그동안 표명해왔던 중립정책을 포기하고 청조를 지원하는 무력간섭정책으로 돌아선 이유이다. 아울러 무력간섭의 범위를 상해 및 개항장의 방어에만 국한하고자 했는지 내지탈환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었는지, 내지탈환에도 참여했다면 그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하는 점도 주목되는 문제이다.

이상의 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借師助剿 내지는 그 활동에 참여한 관신층에 대하여 태평천국을 진압한 매국적·반민족적 형태라는 시각으로만 보아온 게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상해관신」의 입장이라는 측면에 촛점을 맞추어 그들

4) 拙稿, 「四太后政權의 成立過程에 대하여 — 辛酉政變의 再檢討 —」, 『東洋史學研究』 第21輯, 1985, pp.101-102 참조.

의 차병조초의 논리와 행동을, 曾國藩이나 李鴻章과 같은 지방대신 및 恭親王의 그것과 함께 살핌으로써 차병조초론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그들의 논리와 행동에는 그들의 계급적 속성이 반영되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을 매국적 시각으로만 볼 수 있는지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논지는 과연 그들의 논리에 주권의식이 있었는지 하는 점에 두고자 한다. 이 경우 이들 官紳들이 주축이 되어 助剿의 경제적 지원을 주로 담당했던 上海會防局의 실제적 역할을 검토하는 것은 그들의 인식과 행동을 점검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Ⅰ. 「上海會防局」의 성립 배경

청조가 上海官紳들의 借師助剿 요구를 정식으로 인정한 것은 그들이 열강과 합동으로 설립한 中外會防局을 인정한 1862년 2월 8일의 일이지만,[5] 그때에 이르기까지 借師助剿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 우선 청조로서는 북경조약을 맺고 이듬해 서양과의 외교업무를 전담하는 總理衙門이 성립하여 공친왕을 중심으로 文祥 등 초기 양무파를 형성하면서 이들의 서양인식이 호의적으로 변화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공친왕의 경우는 북경조약 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맡으면서 그 인식이 일변되고 있는데, 가령 서양인들에게는 '詭謀'가 없다든가 그들은 信義를 중시하고 우리를 屬國이 아닌 隣邦으로 대하고자 하며, 그들의 뜻은 안으로는 통상에 있고 밖으로는 체면을 세우려는 데 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6] 그리하여 그해 12월에 이르면 이제는 태평천국의 진압이 가장 급박한 '心服之害'이며 통상에 뜻이 있는 영국은 '肢體之患'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볼 수 있다.[7] 이런 변화의 요인은 조약체결 과정에서 열강의 공친왕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8]

---

5) 『籌辦夷務始末』(이하 『始末』로 略) (同治朝) 卷4, 2b-3b.
6) 「檔案史料」, 中國史學會編, 『第二次鴉片戰爭』(4), 上海, 1978, pp. 269-70.
7) 同上, p. 341.
8) 拙稿, 「1860年 英佛聯合軍에 대한 淸朝의 對應 — 파아크스의 拘禁事件과 恭親王 —」, 『釜山史學』 第10輯, 1986, p. 61 참조.

이러한 열강의 지지를 기반으로 공친왕이 1861년 11월 서태후와 모의하여 열하의 怡親王 등 이른바 열하파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것은[9] 청조나 열강에게 하나의 커다란 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미 북경조약에 조인한 후 영국수상 Palmerstone은 "상황이 변했다. 종전에 중영은 仇敵이었지만 이제는 극히 우호적 관계에 이르렀다. … 만약 우리가 주는 우호적인 원조에 의해 중국의 내부가 모두 정상화 된다면, 장래 상업은 큰 발전을 보게 될 것이다. … 만약 원조하지 않고 … 중국정부 스스로의 노력으로 改進하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진실로 자살 행위가 될 것"[10]이라고 하여 조초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바 있었다. 그런데 신유정변이 일어난 후에는 영국의 청조에 대한 지지가 현저히 증가한 것이다. 영국공사 Bruce가 외상 Russell에게 보낸 보고에 의하면, 신유정변에 대한 평가를 주전파의 몰락으로 보면서 이제야 "조약의 실질적인 비준"에 이른 것이며 우호적으로 교섭하려 하고 또 그 가능성을 믿는 집단을 창조한 것, 그리고 그러한 집단을 도와 권력에 오르게 한 것이 기쁘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11] 영국이 공친왕에 대한 기대가 어떠했으며 신유정변에 어느 정도 간여했는가를 짐작하게 해준다. 당시 상해에서 발간되고 있던 *North China Herald*에 의하면 공친왕이 권력에 복귀한 사실을 말하면서 "중국역사상 외국의 대표가 현재의 영불공사보다 북경의 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12] 서태후 정권 탄생과정에서의 열강과의 밀접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며, 이러한 사실은 청조가 앞으로 취할 대외정책 방향을 예시해준다고 할 것이다.[13]

---

9) 拙稿, 「西太后政權의 成立過程에 대하여」 참조.

10) A. E. Hake, *Events in the Taiping Rebellion*, London, 1891, p. 85.

11) Banno, *China and the West, 1858-1861*, Havard Univ.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64, pp. 240-1.

12) *North China Herald*, 第608期, 1862. 3. 22, 上海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編譯, 『太平天國在上海 — 〈北華捷報〉 選譯』, 上海, 1983, p. 271.

13) 상해관신의 신유정변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찾기 힘들다. 다만 공친왕의 측근으로 추측되는 周家勛(吳煦와 薛煥의 급한 서한을 議政王에게 올리고 있다. 「周家勛致吳煦函」, 1861. 11. 27, 『吳煦檔』(2), p. 154 및 12월 3일자의 서한, p. 156)이 吳煦에 보내는 서한에서, 언로가 크게 열렸다든가 중흥의 모습이 있다든가, 諸名公이 中外에 널리 힘을 다하여 妖氣를 속히 소탕하기를 바랄뿐이라 하고 있는 것을 보면(pp. 154-5), 상해관신들도 신유정변을 환영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아울러 「胡家玉致吳煦函」, 1861. 12. 10, 『吳煦檔』(2), pp. 161-2도 참조.

물론 영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반란 진압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일종의 중립정책을 유지했다.[14] 그러나 1861년 전기간을 통하여 영국이 개입된 사건은 현저히 많아졌으니 예컨대, 7월에 공친왕과의 협상을 마친후 Bruce는 상해의 영사에게 외국상인들이 태평군이 점령중인 安慶에 더 이상의 물자를 공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고,[15] 8월에는 Wade와 文祥의 면담에서 寧波의 지방관은 은 50만량으로 영불병선을 고용하여 寧波의 수비를 대신토록 하고 있으며,[16] 10월에 공친왕은 Bruce로부터 외국선은 개항장 근처 이외의 어떤 곳에서도 정박하는 것을 금지시키겠다는 동의를 얻고 있는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17]

이러한 반공식적 중영협조정책의 사례들이 점차 축적됨으로써 1862년 초 태평에 대한 중립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간섭정책이 시행된 유일하고 명확한 시점은 없었을 뿐만아니라, 정책상의 변화가 모든 점에서 완전하고 일관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적어도 1862년 말까지 영국의 영사가 남경에 머물고 있었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정책의 실질적인 출발시기는 함풍제 死去에서부터 쿠테타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9]

물론 1861년을 통해 영국은 형식적으로는 중립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가령 영국해군 사령관 Sir James Hope는 북경원정 종료후 태평천국 문제에 관심을 돌려 양자강을 탐사하고 있는데, 이는 조약규정에 비추어 양자강 내륙에서 획득할 수 있는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와, 장강 중하류에 상당히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태평천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2월 13일 상해를 출발하여 2월 20일에 남경에 도착한 일행은 Parkes, Hughes(영사), Wolsely, Aplin 등이 수행하여 Parkes, Aplin이 蒙時雍과 회담했는데, 그 결과 4월 2일에는 양

14) Gregory, *Great Britain and the Taipings*, London, 1969, p.105.
15) Lindley, *Ti-ping Tien-Kwoh*, i, 1866, p.358.
16) 『始末』(咸豊朝)(中華書局本, 1978) 卷80, 咸 11.6.27, no.2977, p.2964.
17) Kuhn, 'The Taiping Rebellio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10, 1978, p.303.
18) Gregory, *Great Britain and the Taipings*, London, 1969, p.109.
19) Grady, *The Career of I-HSIN, Prince Kung, 1858-1880; A Case Study of Reform in Late Ch'ing*, Ph.D.Diss., Univ. of Toronto, 1980, p.160.

자강을 통행하는 영국선박에 대한 불간섭, 上海·吳淞 주변 30 마일(백리) 중립지대화(익년내 불진입) 등에 합의를 보고 있다.[20]

이러한 과정에서 Hope는 통상목적을 위해 태평천국을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고자 하기도 했고,[21] 영사 Meadows는 Russell에 (1861.3.19) 어느 나라도 간섭할 권리가 없으므로 영국의 간섭은 불법이며 태평천국은 영국 무역에 대해 공격하지 않았다면서 간섭을 반대하기도 했다.[22] 이러한 태평천국 인정론은 Bruce가 '무장중립'을 건의함으로써 강력히 제어되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영국외교관은 청조에 보다 우호적이고 태평에 더욱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지 외교관과 군사지휘자들이 이러한 정책변화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니, Bruce는 Russell에게 태평천국은 파괴적이고 신성불경하며 비윤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데에 모든 사람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며, 태평천국은 청조를 이어 정권을 세우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청조 지지정책을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23] 본국정부도 이를 추인하고 있다. 예컨대 Ward의 양창대가 활동을 개시한지 몇달 후, Ward를 약탈자·해적으로 간주하여 영사·장군들에 의해 처벌이 요구되고, 5월 19일에는 그를 중립을 파기하고 영국탈주병을 유혹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1861년 말경에는 영국의 정책변화로 Hope는 松江의 Ward의 막사를 방문, 모든 필요한 지원의 제공을 확약했고 실제로 洋槍隊는 1862년 영불군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24]

그 사이에 助剿의 방법을 둘러싸고 현지의 영국관리들과 군사지도자들 사이에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가령 Hope의 양자강 항행시 남경에 머물게 하여 일주일간 관찰케 했던 군관 Wolseley는 天京을 공격하면 일개월내 붕괴할 것이라며 남경의 공격을 주장했으며,[25] 이를 계기로 영국공

20) Teng, *The Taiping Rebellion And The Western Powers*, London, 1971, reprinted by Yee Wen Publishing Co., 1977, pp. 303-4; 茅家琦, 『太平天國對外關係史』, pp. 198-203 참조.
21) FO. 17/364, 1861.3.8, Teng, pp. 303-4.
22) 茅家琦, 『太平天國對外關係史』, pp. 231-4.
23) FO. 17/353, no. 73.
24) Teng, pp. 304-5, 319.
25) Lindley, *Ti-ping Tien-kwoh*; 胡繩, 『從鴉片戰爭到五四運動』 上冊, 上海, 1982, pp. 284-5.

사와 군사지도자와의 사이에 토론이 벌어진 것이다. 1861년 5월 10일, 광주영사 Robertson도 인도사무부관원 Alston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국세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 만약 반군이 다시 크게 진전한다면 북경조정은 사방에서 외국원조를 구할 것이다. … 만약 나한테 이러한 권한이 있다면, 청정부에 원조를 주겠다. … (Montauban이 본국에 귀국하여 상해에서의 청조군에 원조할 것임을 말하면서) 사실상 중국의 전도는 매우 어두워 외부로부터 강력한 원조가 없으면 붕괴될 것이며, 우리들의 가장 유리한 이익도 매몰되어 없어질 것"이라며 태평천국에 대한 공격을 주장하고 있다.[26]

그러나 상해영사 Meadows는 Russell에게 보내는 보고서에서(1861. 2. 19), 2,000 마일의 양자강 및 그 지류의 작전에는 2만 군대 및 3,4개 병단이 필요할 것인데 … 이는 영국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최대의 번거롭고 소모가 드는 전쟁이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직접경비가 거대할 뿐만 아니라 상업이 이로써 받는 손실은 더욱 클 것이라 하여 무장간섭에 반대하고 있다.[27] 6월 16일, Bruce도 Hope에 보내는 서신에서 남경공략에 매우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남경탈취가 성공한다 해도 반란을 종결지울 수 없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경탈취가 반군이 점거하고 있는 장강 연안지구에서 퇴출시킬 수 있을 뿐이고 청조의 군대가 끝까지 추격하여 와해시킬 수 없다면 그들은 우리가 공격할 수 없는 다른 지역을 점령할 것이며, 우리가 각 통상항구 방어에 충분한 병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예기치 못한 기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반도들에 중립엄수를 보증했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간섭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양측에 편들지 않는 방관적인 침착한 태도를 오래 표시하면 할수록 그들은 높은 대가를 치루며 더욱 우리의 우의를 얻으려 할 것"[28]이라 하고 있다.

연초에 태평천국을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고자 했던 Hope제독은 이러

26) FO. 17/360, 嚴中平, 「1861年北京政變前後中英反革命的句結(續)」, 『歷史教學』, 1952-5.

27) *Papers Relating to the Rebellion in China, and Trade in the Yang-tze-kiang River,* Presented to the House of Commons by Command of Her Majesty, in pursuance of their Adress dated April 8, 1862, No. 3, p. 6.

28) *Yang-tze-kiang,* Inclosure 2 in No. 17, pp. 57-58.

한 Bruce의 서신을 받고 역시 남경공격에 강한 반대의사를 개진하고 있다. 7.11일 Hope는 Bruce에의 답신에서, "남경공격에는 육군이나 해군병력 2,000명이면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남경의 점령은 가장 큰 실책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태평정부는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내지의 성시로 옮길 것이며 강한 적대감을 야기할 것이고 반면에 태평정부가 남경에 남아 있는 한 그들과 쉽게 접촉이 가능하여 통상이익에 긴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상해 무역을 언제고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울 수 없다"[29]는 것이다.

그리하여 1861년 9월 7일, Russell은 Bruce에게 훈령을 보내어 본국정부는 Hope의 남경공략이 매우 졸렬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그러나 청조가 개항장들을 공격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면 개항장을 방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상해와 천진은 우리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한 우리가 방어해야 할 것이라 하여 개항장의 방어만 인정하고 있다.[30]

이렇듯 남경공격 여부를 둘러싸고 벌이진 논쟁에서는 일단 반대론이 승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862년 1월 1일, 전년 12월 27일 Hope가 Renard호 함장 Bing-ham과 Parkes를 통해 제시한, 영국국기를 게양한 배의 자유로운 항행의 보장, 上海·吳淞 및 漢口·九江 주변 100리 이내의 진입 엄금 등 4항 요구[31]가 태평군에 의해 거절된 이후로는 보다 적극적인 무장간섭으로 나아가고 있다. 2월 22일, Hope는 Bruce 에게 보낸 서신에서 영불 연합군은 상해방어에 충분한 嘉定·青浦·松江의 라인을 따라 태평군을 격퇴할 것이며 그곳에서 Ward가 청군을 돕게 한다면 결국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32] 이에 대해 3월 19일, Bruce는 Hope에의 답신에서, 상해의 일정한 반경을 지키자는 계획에 동의하고 있다. "상해만 지킨다면 우리가 태평군을 두려워한다는 인식을 줄 것이고, 우리가 태평군에 총공세를 가하지 않고 해당지역을 방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그들의 참패

29) *Yang-tze-kiang*, no.18, p.60.
30) *Yang-tze-kiang*, no.19, p.60.
31) 牟安世, 『太平天國』, 上海, 1979(增訂本), pp.406-12 참조.
32) *Further Papers Relating To The Rebellion In China*, Presented to both Houses of Parliament by Command of her Majesty, 1862, Inclosure 1 in no.6, p.10.

뿐이라는 인상을 깊히 심어줘야 한다. 이들 작전의 성공 여부는 주로 청정부군 자체에 달려 있다. 따라서 나는 청조에 Ward군의 강화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하여 상해만의 방어가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33]

물론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본국정부의 승인을 얻고 있다. 즉 1862년 3월 4일, Bruce는 Russell에게 보내는 보고문에서, "(미 선교사 Roberts가 태평에 대해 비난한 글을 동봉, 소개하면서) Hope가 태평천국으로부터 개항장 혹은 양자강의 무역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어떠한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으며, 태평도의 약탈에 대한 보상도 그들은 거절했다. 상해는 위협받고 있고 물자공급도 끊겼으며, 그들은 우리의 적극적 행동에 대담해질 것이고 寧波 점령은 우리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나는 이미 Hope에 만약 그들이 상해를 계속 위협한다면 그들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할 것임을 통보했다. 그러한 공격은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유지케 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있으며,[34] 6월 2일 및 12일, Russell은 Bruce에게 이 정책의 변화를 승인하고 있는 것이다.[35]

이렇게 보면 영국이 비록 내지에서의 무장간섭은 회피하려 하고 있지만 종전보다 적극적 간섭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계기는 앞서 살핀 바 있던 신유정변에 기인한다고 볼 것이다. 영국이 내지에 대한 '會剿'에 반대한 이유는 병력부족(당시 상해의 영국군은 2500명, 기타 지역에서 강화해도 총 4,000명에 불과했음)에다 軍費부족, 그리고 보급로의 애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36] 가령 1862년 5월, Bruce는 恭親王에게의 서신을 통해 영국정부는 해군력을 조약항구 보호에만 사용하지 지상전에는 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청조가 이들 항구에서 자기군대를 改進시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조계 무역만 방어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라든가,[37] 7월 7일, Russell의 Bruce에의 훈령에서는, 태

33) *Further Papers*, Inclosure 2 in no. 6, pp. 10-11. 간섭정책으로의 변화에 대하여는 *North China Herald* 제 606호, 1862. 3. 8, 『太平軍在上海 — 『北華捷報』選譯』, pp. 258-261도 참조.
34) *Further Papers*, no. 2, p. 7.
35) *Further Papers*, no. 5, p. 8 및 no. 7, p. 12.
36) 茅家琦, 『太平天國對外關係史』, pp. 257-8.
37) Gregory, pp. 234-5.

평군을 진압하려 한다면 우리는 곧장 확대된 전투속에 휘말릴 것이고 반면에 청조는 방관만 할뿐 부담과 경비를 우리에게 떠맡기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합당한 방침은 우리의 통상과 개항장을 방어하고 청조로 하여금 반도를 진압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포병·보병·기병부대를 건립하도록 돕는 것이라 하고 있다.[38] 이는 곧 내지의 태평군 진압은 Ward의 常勝軍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1862년 2월 22일, Hope는 Bruce에게 상승군을 연합군이 嘉定·青浦·松江 점령후 청조군대와 함께 수비토록 제안하고 있고,[39] 3월 26일, Bruce는 Russell에게 Ward군의 조직방식이 혼란한 상태의 중국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만약 청조가 현명하게 이 개혁을 채용한다면 구원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우리가) 주요항구에서 이러한 형식의 군대를 조직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파괴되지는 않을 것[40]이라 하고 있으며, 4월 23일, Bruce가 Staveley에게는 상해방어후 중국군이 태평군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조처는 포병대를 구비한 우수한 군대를 조직시키는 것이라면서 Sraveley에게 지방당국을 도와 Ward군을 증강시키고 포병대를 조직하는 데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중국인 자신의 입장에서 보아 우리의 협동이 가능한한 지원상의 협동으로 국한되고, 그들 자신이 반도보다 결정적으로 월등할 수 있는 필요한 군사장비를 공급받는 것이[41] 상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1862년 초, 상해주둔의 영국군대는 Ward의 상승군에 원가로 무기를 공급하고 상해에서 인도로 철수하는 2개군단의 총포와 장비를 싼 값으로 상해 당국에 팔고 있다[42]. 물론 열강의 무장간섭의 동기는 무엇보다도 양자강을 중심으로 한 통상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데 있었고, 북경조약 규정의 선결조건에 의거, 태평군을 초멸하기를 기다려야만 비로소 남경 등 양자강의 개방항구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약상의 권리를 움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태평군의 초멸을 도와야 했던 것이다. 양자강의 입구인 경제침략의 심장부, 상해의 점유에 대해서도 Parkes의 말처럼 對華정책의 유일한 목적이라 할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

38) *Further Papers*, No. 20, p. 26.
39) *Further Papers*, Inclosure 1 in No. 6, p. 10.
40) *Further Papers*, No. 6 p. 8.
41) *Further Papers*, inclosure in no. 18, pp. 24-5.
42) 茅家琦, pp. 259-60; Gregory, p. 124.

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43] 가능한한 자국의 희생을 줄이면서 중국인을 통한 중국인의 제압('以華制華')을 최상의 정책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44] 그러면서도 군사훈련교관이나 군사지휘관은 가령 常勝軍은 물론이고 常安軍·常捷軍에서처럼 영불의 장교가 담당하여 최대한의 이해관계를 확보하려 한 것이다.

Ⅱ. 上海官紳의 「借兵助剿」論과 「上海會防局」의 成立

1. 上海官紳의 危機意識과 借兵活動

上海를 중심으로 한 江浙지방은 제1차 중영전쟁 이후 대외무역의 중심부로 부상하여 열강의 대 중국정책의 핵심적 목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京師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富의 중심지가 되고 있었다. 더우기 태평천국이 남경에 도읍을 정한 후 江浙 양성 및 寧徽 각지방의, 예컨대 蘇州·常州·寧波 등지의 도시와 농촌의 지주·當商·고리대업자 등 當貴之家의 도피처가 되고 있었다. 1860년에 이들의 이주가 절정에 달했는데, 이들은 수만호에 이르러 洋涇濱은 물샐틈 없이 꽉 들어찼으니, 당시 조계방무위원회의 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조계에 도피한 중국인이 70만명 이상에 이른다고 하고 있으며[45], 한 외국인의 통계에 따르면 영국 조계에 도피해 온 이들의 자산만도 650만량에 이르고 있을 정도였다.[46] 상해의 사회세력은 상해가 개항될 때 광동에서 이주해와 거부가 된 (초기) 매판상인·매판관신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 매판상인·매판관료 그리고 도피해온 인근지방의 지주·호상들이 극력 借師助剿를 주도하고 주장한 것이다.[47] 물론 現官과 各局의 局員들도 광동출신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는데, 가령 1850년대에 차병조초를 주도했던 吳健彰과 같은

43) 간섭의 동기에 대해서는 Teng, pp.312-3 참조.
44) 于醒民, 1987, pp.422-3 참조.
45) *Yang-tze-kiang*, Inclosure 9 in No.41, p.125.
46) 『申報』, 1876.2.3, 劉燿, 1987, p. 408; 于醒民, 1987, p.422 및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 『中國近代史稿』 제1책, 北京, 1978, p.223 등 참조.
47) 『申報』, 1881.5.1, 1877.2.9, 劉燿, 1987, pp.407-8; 于醒民, 1987, pp. 420-23 참조.

인물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借師助剿를 주도했던 세력은 바로 이러한 상해의 특수한 사회적 배경에서 배태한 매판관신 내지는 상인·지주계층이었던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상해는 외국의 침략과 태평천국이라는 두 충격을 가장 직접적이고 민감하게 받은 곳이며, 외국 침략자들의 탐욕대상, 태평천국의 공격대상이 되는 전략요지로서, 반식민지화가 가장 심화된 지역, 매판관신 세력이 발생하고 발전한 곳이었다.[48] 그런만큼 적어도 이들 상해관신들의 借師助剿 요구는 그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대변한 것이기도 하려니와, 앞에서 언급했던 열강의 간섭의도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측면도 있었다.

상해의 위기상황은 1861년 내내 지속되었다. 가령 3월에도 사면초가요 진퇴유곡의 위기상황속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도로가 막히고 稅捐이 모두 끊겨 점차 坐困之勢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적은 또 항주, 湖州, 寧波, 紹興을 넘보고 있으니 … 실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국세가 이에 이르니 정말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杞憂를 버릴 수 있게 할지, 언제 이 거꾸로 매달린 상황이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49] 위기의식은 吳煦만이 느끼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태평군의 집중적 공격을 받았던 浙江省의 위기의식은 더욱 심했다. 군사는 동원할 사람이 없고, 半餉만 지급하고 있는 兵餉도 조달할 길이 없으니 진실로 속수무책의 형세라는 것이며,[50] 11월 蕭山이 함락되고 紹興의 길이 단절되어 식량, 화약, 밀랍 등의 품목이 부족되었을 때, 절강이 없으면 상해도 마지막 숭부를 걸게 된다면서 이 '存亡呼吸之間'에 한가닥 활로인 상해에 조달을 호소하고 있고,[51] 長興이 함락되었을 때, "성중에는 열흘의 식량밖에 없다고 하니 이제는 찾아낼 수도 없고 일 개월을 넘기지 못할 형국이니, 軍民之心이 어찌 황량하지 않으랴? 杭湖가 함락되면 上海는 진실로 고립되니 말만 들어도 전율하게 한다. … 이번에 만일 杭城이 적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동남의 대국은 이로부터 전환될 날이 없을 것"이라는[52] 절박감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상해관신들을 우려하게 했던 것은 양자강에 들어가 태평천국과

48) 于醒民, 1987, pp.436-7 참조.
49) 「吳煦致鍾書舲函」, 1861.3.2, 『吳煦檔』(2), p.20.
50) 「王有齡致吳煦函」, 1861.5.29, 『吳煦檔』(2), pp.52-3.
51) 「王有齡致吳煦函」, 1861.11.3, 『吳煦檔』(2), pp.144-5.
52) 「吳雲上吳煦稟」, 1861.11.2, 『吳煦檔』(2), pp.139-40.

접촉을 시도하는 열강과 태평천국과의 결탁 가능성이었다.[53] 根本重地이자 江蘇의 한가닥 삶의 희망인 상해의 회복은 "洋夷와 賊이 만약 勾通한다면" 상상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나,[54] 杭州의 위급함을 전하고 薛煥에 지원을 대신 요청해주길 바라면서, '夷와 賊이 이미 결탁하여 杭州를 얻으면 和約을 맺고 通商항구로 삼을 것'이라는 傳聞을 吳煦에게 전하는 王有齡의 절박감은 당시의 상황을 잘 나타내준다 하겠다.[55] 태평군과의 결탁이 한갓 근거없는 소문으로만 인식된 것은 아닌듯하니, Hope 일행의 태평천국과의 접촉은 물론이려니와, 가령 太湖의 東山에서 고용한 洋夷의 輪船이 도리혀 태평군을 도왔다는 보고는 양자의 내통을 확신하게 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56]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열강이 중립정책을 견지하는 한 항상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실제로 185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였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강이 청조에 호의적으로 돌아섬으로써 점차 불식된 것으로 보인다.

태평천국이 上海 주변의 도시를 점령해오던 1861년 12월, 이들은 전년의 상해공세 때 느꼈던 위기의식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되었다. 태평천국은 12월 9일 寧波를 점령한데 이어서 29일에는 杭州를 다시 점령함으로써[57] 이제는 상해를 점령할 기세였던 것이다. 예컨대 당시 借師助剿를 주도했던 吳煦는 위급함이 庚申년보다 훨씬 심하여 安危가 일각을 다툰다고 하고 있다.[58] 여기에서 吳煦는 경신년에도 서양의 군사력이 없었다면 상해는 이미 적의 수중에 들었을 것이라면서 또다시 서양군사를 빌지 않으면 상해는 함락되고 말 것이라 하고 있고,[59] 吳雲은 '群策群力'을 동원해서 조초를 얻어내야 한다 하고 있는 것이다.[60] 吳雲은 또 周騰虎에의 서신에서

53) 「吳煦致鍾書舲函」, 1861.3.2, 『吳煦檔』(2), p.20; 「吳煦檔』(2), p.20; 「吳煦上王有齡稟」, 1861.3.5, 『吳煦檔』(2), p.23.

54) 「王有齡致吳煦函」, 1861.4.4, 『吳煦檔』(2), pp.44.

55) 「王有齡致吳煦函」, 1861.5.8, 『吳煦檔』(2), pp.50-1.

56) 「王有齡致吳煦函」, 1861.3.14, 『吳煦檔』(2), pp. 24-5.

57) 寧波가 점령된 후 杭州紳士들은 절강의 위기상황을 전하면서 중국번에게 항주를 구원해 줄 군대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杭州士臣上曾國藩乞授呈文」, 1861.12, 『吳煦檔』(2), pp.169-70.

58) 吳煦, 「防守上海大略」, 太平天國歷史博物館編, 『太平天國史料叢編簡輯』(이하 『簡輯』으로 약칭) 제6책, 中華書局, 1963, p.173.

59) 동상, pp.172-3.

60) 「吳雲上吳煦稟」, 1861.12.15, 『吳煦檔』(2), p.165. 아울러 「吳雲上吳煦稟」, 1861.9.22·23, 『吳煦檔』(2), pp.108, 110-1도 참조.

Parkes와의 회담상황을 전하고 아울러 外援이 없으면 오래 지탱하기 어렵다면서 증국번의 군대가 조속히 도착하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같은 서한에서 Parkes는 吳雲·應寶時 등 상해관신들에게 助剿를 위해서는 먼저 청조에 상주를 올려 정식으로 허가받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61]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태평천국에 함락될 위기의 상황에서 이들의 활동방향은 열강의 助剿와 증국번의 원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은 물론 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열강과의 협상에 나선 이들은 양강총독 薛煥이 모든 활동의 리더로서 상주를 담당하고, 吳煦가 협상 책임을 맡았으며, 應寶時·吳雲·潘曾瑋·顧文彬 등이 Parkes를 대상으로 협상에 나섰다. 열강은 1862년 1월 3일 태평군의 제2차 上海진공에 대비해 上海 영사관에서 上海방어 등을 위한 E.M.Smith의 제안을 상의키 위해 납세인(Land-renters)회의를 열고 5인을 선발, 상해조계방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62] 이어 1월 12일 吳煦는 Parkes, Medhurst, Edan 등과 上海 방어를 상의하였는데, 吳煦는 이를 영국군으로부터 협조를 얻을 기회로 보고 吳雲·應寶時에게 상해 방위와 蘇州·常州·남경의 회복을 위해 협상토록 한 것이다. 여기에서 吳雲과 應寶時는 군사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용의를 밝혔는데, 顧文彬·潘曾瑋와 2차 회담을 가진후 Parkes는 그들의 요구에 동의하였다. 여기에서 吳煦는 영불이 청정부에 부여한 각종임무를 받아들이고[63] 이튿날 吳煦 등은 회방국을 설립한 것이다. 이 회방국은 應寶時·吳雲·潘曾瑋·顧文彬 등 4인이 主持하였다. 상해의 신사들은 이 중영합의를 상주할 것을 薛煥에게 공동 탄원하였는데, 탄원자들은 상해에서의 영향력있는 신사가 거의 포함되고 있다.[64] 이렇듯 上海會防局은 열강과 상해관신

61) 吳雲, 「致周韜甫主政騰虎書」, 吳雲, 『兩罍軒尺牘』 卷12, 『簡輯』(6), pp. 138-139.

62) *Yang-tze-kiang*, Inclosure 6 in No.41, pp.119-21 및 Inclosure 7.9, pp.119-26 참조.

63) *ibid*, inclosure 4, pp.116-8. 임무에 대해서는 *ibid*, pp.116-8; 趙烈文輯, 「上海會防局資料及其他」, 『簡輯』(6), pp.169-70; 茅家琦, pp.249-50 등 참조.

64) 吳雲, 『兩罍軒尺牘』 卷12, 『簡輯』(6), p.133, 138; 馮桂芬, 『顯志堂稿』, 권4, pp.19-20; 趙烈文輯, 「會防局資料」, 『簡輯』(6), pp.166-7; 『吳煦檔』(1), pp.64-5의 설환의 주; 「江浙紳士爲借師助剿呈蘇撫」, 1861.12, 『吳煦檔』(2), pp.170-2 등 참조.

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고 있는데서 쉽사리 성립된 것이다. 가령 會防局 성립 하루전에 영국과 프랑스 문무관 회의에서는, 상해주변 11곳에 정탐꾼 50명을 보내어 매일 2, 3명으로 하여금 상해로 정황을 보고하게 한다든가, 黃浦·吳松江口의 선박을 소개시킨다거나, 길을 닦는다거나, 洋涇濱에 公所를 세워 상기의 임무와 '中外會辦'을 담당하게 한다는 등의 합의를 보고 있어,[65] 이들도 상해관신들과의 會防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주로 재정적 이유로 볼 수 있다.[66]

상해관신들의 또다른 활동방향은 증국번의 湘軍에 기대하는 것이었다. 상군에의 "乞師" 열기는 1861년 9월 5일 상군이 安慶을 함락했을 때부터 일었는데, 그해 겨울이 되면 曾國藩(兵部尙書·欽差大臣·節制四省軍務)의 군영에는 "江浙官紳의 위급을 알리는 서신이 하루에 수십 통에 이를" 정도였던 것이다.[67] 이들은 증국번을 "자비로운 부모같이 고대하고 있었다."[68] 薛煥과 吳煦도 증국번의 상군이 조속히 상해로 오길 고대하면서, "이는 금일의 第一策이다", 혹은 "重兵이 없다면, 客兵은 반드시 끝내 우리에게 쓰임이 되지 않을 것"이라 하고 있다.[69] 이들의 湘軍에의 기대는 당시 청조군이 무력한 상황에서 태평군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군대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다. 가령 1861년의 경우 설환이 모집한 군대가 5만 6천여에 이르렀지만 이들은 시정의 무뢰배이어서 절도를 하거나 通賊하며, 적을 보면 鳥獸가 흩어지듯이 달아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70] 그리

65) 「薛煥致吳煦函」, 1862.1.12의 附 「英法文武官會議防剿事宜」 (1862.1.12), 『吳煦檔』(2), p.203 참조.

66) 가령 上海租界防務委員會의 보고에 의하면, 위원회가 이미 지출한 비용이 2만 5천량인데, 그중 2만량은 '몇몇명의 열성적이고 公益的인' 중국인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한다. *North China Herald*, 제610호, 1862.4.5, 『太平軍在上海 — 『北華捷報』選譯』, p.281.

67) 『淸史稿』, 列傳, 「曾國藩傳」 참조.

68) 李濱, 「中興別記」 권52, 中華書局, 1980년판, 『太平天國資料匯編』 제2冊, p.837; 于醒民, 1987, p.428.

69) 李鴻章, 「吳煦請建祀摺」, 同 12.2.17, 『李文忠公全集』 奏稿 권21, 항 10a-b; 于醒民, 1987, pp.428-9. 이들 중 상당수는 증국번의 막부에 들어가고 있다. 가령 江南士林의 "宗主"라는 周騰虎(韜甫)는 上海와 안휘간의 연락특사가 되고 있고, 周의 처남인 趙烈文(能靜)은 借師사무도 포함한 상군의 機要에 참여하고 있다. 『曾國藩未刊信稿』, 中華書局 1951년판, 제350-1항; 『碑傳集補』 권26.

70) 吳煦, 「防守上海大略」, 『簡輯』(6), p.170; 馮桂芬, 「皖水迎師記」, 『顯志堂稿』 권4, 『簡輯』(2), p.225.

하여 吳煦는 錢鼎銘을 증국번에게 파견하여, 증국번으로부터 이홍장을 파견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내고 Medhurst와 상의, 英商 Mackenzie Richardson & Co.와 계약을 맺고 輪船으로 9천명의 淮軍을 安慶에서 상해까지 운송하게 되는 것이다.[71]

상해관신들의 줄기찬 요구와 수차례에 걸친 上諭에도 불구하고[72] 증국번이 원군을 뒤늦게 4월초에서 5월초에 걸쳐 보내는 것은, 증국번의 말대로 安慶을 점령한 후 각처를 방어하기 위해 進剿할 여력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龐鐘璐에 대한 답신에서 "9 舍弟(國荃)에게 호남에 돌아가 정예를 모집하여, 新兵으로 각처의 방어를 대신 맡기고 舊兵을 하류로 보내어 초멸하게 할 것이다. …… 만약 풍파로 지체되어 안휘 도착이 조금 늦어진다면 李鴻章으로 하여금 먼저 만 명을 이끌고 가도록 할 것이며, 2월(음력)에는 출발하도록"할 것이라면서, '재난의 화급함은 피차가 함께하는 것'이니 기일을 어기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 기일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73] 그것은 원거리인 탓도 있겠으나, 경비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李鴻章은 吳煦에게 淮軍은 매월 6만량의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東征之餉」을 요구하고 있고[74], 3월에 가서는 10여만금과 弁勇에

71) 일인당 운송비는 白銀 20량, 도합 18만량이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외채 25만량을 빌었다 한다(茅家琦, p.253 참조). 이에 관한 협상과정에 대해서는 馮桂芬, 동상, pp.226-7 참조. 설환은 과다한 비용을 이유로 陸運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吳煦의 설득으로 水運을 허락하고 있는데(p.227), 吳煦는 설환에게 輪船을 고용하여 운반하는 것은 비용이 막대하여 자신도 육로를 원했으나, 원군의 빠른 도착을 갈망하는 諸紳士들의 뜻이라 하여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吳煦上薛煥稟」1862.3.21, 『吳煦檔』(2), pp.287-9). 그러나 吳雲같은 사람은 비용의 과다로 외국상선 고용안에 동조하고 있지 않은데 (「吳雲上吳煦稟」, 『吳煦檔』(2), p.275), 이를 보면 당시의 재정난이 어떠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운임과 지불방법(일인당 20량으로 총 18만량, 14만량 우선지불, 나머지는 두달에 걸쳐 지불), 사고시 책임한계, 운송방법과 기일(3차로 나눠 5주내) 등을 둘러싼 협정과정은 특히 「吳雲顧文彬(藩曾璋)應寶時致吳煦函」, 1862.3.12, 14, 17, 18, 「吳煦檔」(2), pp.276-8, 282-3, 284-5에 자세하다. 「楊坊致吳煦函」, 1862.2.18, 『吳煦檔』(2), p.263도 참조.

72) 가령 『曾國藩全集』 (岳麓書社, 長沙, 1988) 奏稿 4, no.0922, 0929, 0930, 0936, 0937, pp.2050-1, 2062-4, 2075-8에 附錄되어 있는 상유 참조.

73) 「曾國藩致龐鍾璐函」, 1861.11, 『吳煦檔』(2), pp.150-1.

74) 「李鴻章致吳煦函」, 1862.1, 『吳煦檔』(2), p.208.

대한 1,2개월의 양식만 부담해준다면 속히 갈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있으며[75], 曾國藩도 吳煦에게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전진할 수 없다면서 신속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76]

그러나 湘軍이 곧바로 도착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열강으로부터의 도움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따라서 曾의 원군 요청과 함께 四省節制軍務였던 증에게 열강으로부터의 借師助剿 계획에 대해 상해 관신들은 曾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1862년 1월 3일 潘曾瑋는 曾에의 서신에서 會防局의 계획을 설명하고 그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고,[77] 吳煦도 이 계획을 설명하면서 지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78] 증국번도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借師助剿 이외에는 달리 良策이 없으며, 상해의 방어에 국한된 것이라면 기꺼이 따른다고 하고 있지만,[79] 상해관신이 차사조초를 증국번에게 허락을 받고 있다는 점은 그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이기도 하려니와 조정의 허락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860년에 조정의 허가를 얻지 못해 실패한 경험이 있던 상해관신들은 보다 치밀한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父 潘世恩의 은덕으로 刑部員外郞에 加恩되었던[80] 潘曾瑋와 Wade를 잘 알고 있는[81] 龔橙을 북경에 파견하여 借師助剿의 승인을 위하여 활동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潘曾瑋는 恭親王에게 신사의 기대와 상해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그의 관료배경을 가지고 趙光(刑部尙書)으로 하여금 그 계획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趙光의 상주는 소주·상주·남경을 수복할 수 있도록 借兵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龔橙의 임무는 영국과 總署 사이에서 借兵동의를 얻도록 활동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의

75) 「李鴻章致吳煦函」, 1862.3.14, 『吳煦檔』(2), p.278.
76) 「曾國藩致吳煦函」, 1862.3.15, 『吳煦檔』(2), pp.279.
77) 「曾國藩未刊信稿」, pp.7-8, 21-2; Wang, p.571.
78) 「曾國藩致潘曾瑋函」, 1862.1, 『吳煦檔』(2), p.182; 「議復借洋兵剿賊片」, 1862.2.20, 『曾國藩全集』 奏稿 4, No.0927, p.2060; 「曾國藩致吳煦函」, 1862. 2. 24, 『吳煦檔』(2), p.268.
79) 「遵旨統籌全局摺, 1862.3.2, 『曾國藩全集』 奏稿 4, No. 0934, p.2073; 靜吾·仲丁 編, 『吳煦檔案中的太平天國史科選輯』, 北京, 1958, p.81.
80) 『淸史列傳』 권40, 中華書局, 1981년본.
81) 陳錦, 「松滬從戎紀略」, 『簡輯』(2), p.209.

임무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82] 한편 상주를 맡았던 薛煥은 1862년 1,2월 연속으로 상주하여, 借師助剿는 상해 '官紳商民'의 공동의견이라면서 영국인은 大體를 잘 알고 있고 태평군의 해독을 한으로 여기고 있으니 이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83] 이리하여 1862년 2월 8일의 상유는 상해의 차병계획을 승인하고 회방국의 설립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2. 上海會防局의 역할

이렇게 성립한 上海會防局은 태평군의 상해 공격에 대응하는 외국군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상주를 올리기 전에 이미 1월 13일 설립되고 있었다. 潘曾瑋·顧文彬·吳雲·應寶時 등이 薛煥에 의해 董事로 임명되고 있는데, 薛煥의 상주문의 부건으로 올려진 章程의 초안은 吳煦와 應寶時가 작성하고 吳雲이 일부 수정하여 설환에게 보낸 것이었다. 章程에 의하면 회방국의 기능과 임무는 외국병사에게 봉급, 제복, 군사장비, 탄약의 공급을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인원을 만명으로 상정할 때 개인당 월 평균 20량으로 잡아 도합 20만량 드는 비용이었다. 이 경비의 충당방법은 반액은 關稅(道庫)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반액은 영불 조계 주위의 吳淞口·洋涇濱·關王廟 등 세 곳(卡)에서 거둔 釐捐에 의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외국과 합동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한 縣城을 회복하면 2만량, 府城을 회복하면 4만량의 賞銀을 주기로 되어 있으며, 蘇州와 南京을 점령했을 때는 성중의 일체 물건을 외국 兵官의 관리에 두어, 영·불·중이 3분의 1씩 차지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밖에 정탐의 파견, 포대의 건축, 도로의 개축 등의 비용도 담당하고 있었다.[84]

이렇게 보면 회방국의 설립취지가 외국군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에 있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縣令으로 부임한 陳錦에 의하면 "따라서 夷餉이 풍부하여 한 명의 병사(에 대한 대

82) 『簡輯』(1), p.320, (2), p.209; 『海防檔』(1), pp.38-9, 趙光의 奏; 『始末』 同, 卷4, 54a, 卷5, 1a; Wang, p.566.

83) 『始末』 同, 권3, p.48, 권4, p.2; 『吳煦檔』(1), pp.64-66; 『簡輯』(6), pp.165-6.

84) 趙烈文輯, 「上海會防局資料及其他」, 『簡輯』(6), pp.169-170 및 陳錦, 「松滬從戎紀略」, 『簡輯』(2), p.209 참조.

우)가 (중국병사의) 열명(에 대한 대우)에 해당되며, 兵房·船卡·말먹이까지 요구하니 비록 분수에 맞지 않더라도 또한 제공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풍족한 댓가는 夷兵들로 하여금 철수를 고려하지 않게 하였고, 그들이 요구하는 액수는 그대로 지급되어 매월 6,7 萬金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85] 분수에 넘치는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그들이 상정했던 대로 만 명에 이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월 20만량의 비용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선박의 고용, 군대 및 무기의 수송 등에 드는 비용은 상당액에 이르렀다. 가령 6월에 보고된 월 지출내역을 추출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항목〉	〈주요내역〉	〈금액〉(兩)
會防局	董事를 비롯한 인건비 및 주거비 등	1,220
英國 長夫	인부관리 兵官 등 인건비 등	7,000
英國 砲勇教鍊	兵官 급여, 砲勇(280명) 급식비 등	2,456
英國 九畝地 會勇教鍊	教官, 正勇 등(1420명) 인건비 등	8,946
法國 徐家匯 槍勇教鍊	教官, 兵勇(450명) 기타 인건비 등	5,070
雜費	英國兵의 주거지 임대료, 分局 경비 등	10,734
		35,426

이 내역은 6월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중에는 군사장비나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兵勇의 수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 특히 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중 가령 영국 영사의 요구로 지급한 18 군데의 포대 건축비는 18,000량이나 나가고 있어, 이를 합치면 5만량이 넘는다. 교량 건축비도 빠져 있다. 이중 프랑스의 徐家匯 槍勇教鍊 教官에 대한 월급여가 1,080량으로 기타 영국 교관의 200 내지 270량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점이 주목된다. 프랑스에 대한 호감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닐 터인데, 소총 교련이 가장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인지 알 수 없다.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雜費 항목은 영국병의 주거지 임대료가 5천량 가까이 되어 회방분국 경비와 함께 대종을 이루고 있다.[86] 이렇게 보면 외국군에 대한 대우가 과다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달리보면 중국인을 교련하기 위한 비용이 16,472량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85) 陳錦, 「松滬從戎紀略」, 『簡輯』(2), p. 209.
86) 보다 자세한 내역은 「會防局呈開局以來辦理情形幷請添支應處節略」(1862. 6) 附 「會防處呈月支各款摺」(1862), 『吳煦檔』(2), pp. 351-355 참조.

있음을 보면 적어도 6월의 경우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같다.

이를 1862년 1월부터 11월(음력 10월 6일)까지 약 10개월간의 내역과 비교해 보자.

영불병의 출전	25,389
船價	6,750
夫價	1,223
賞恤	3,120
浦東의 馬·步隊	4,819
南黃浦 차단 沙船	5,622
福山 공격	4,558
徐家匯 敎鍊局 費用	19,500
道路工事	17,408
탄약	2,447
雜費	2,400
法國 徐家匯 槍勇敎鍊	13,826
會防公所 經費	51,812
會防分局	27,860
	386,734

이 금액을 規平銀에서 해관에서 사용하는 庫平銀으로 환산하면 대략 352,860량 정도로서[87], 월 평균 지출액은 35만량 가량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6월의 경우와 대략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금액중 海關洋稅銀에서 173,458량이 지출되었고, 道庫捐款銀에서 170,346량이 지불되었다.[88] 애초에 章程에서 규정한 대로 해관세와 捐款에서 각각 절반을 충당한 셈이다. 위 항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회방국의 경비인데, 여기에는 인건비 등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내역은 알 수 없다. 다만 6월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평균액이 월등하게 많은데, 이는 6월의 경비가 유난히 적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항목구분이 정

87) 「會防經費冊」(1862.1-11), 『吳煦檔』(7), pp.243-4. 자세한 내역은 pp.243-260 참조.
88) 동상, p.244.

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예컨대 영국병사의 주거지 임대료가 6월에는 잡비로 처리되었는데, 여기에서는 회방국경비로 처리되고 있다. 다만 교련비용을 보면 33,326량으로 전체의 8%정도에 불과해 6월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련 받는 兵勇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하겠다.

그런데 會防局을 통해 지출된 이 경비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기간에 걸친 海關洋稅銀과 道庫捐款銀의 총액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정확한 액수를 구할 수가 없다. 다만 전자의 경우 江海關에서의 징수 실적이 나와 있고,[89] 후자의 경우는 25개에 이르는 상해지방의 각 捐局의 징수 실적이 나와 있어서[90] 그 대체적 규모를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자료의 성격상 상당한 기술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그 비율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정도의 지적만 하고 넘어간다. 대신 蘇松太道 吳煦가 동 기간에 松滬 各營에 지원한 액수는 정확히 나와 있다.[91] 위 기간중에 江海關庫에서 위 군영에 지급한 액수는 銀 1,961,471 兩으로 회방국에 지원한 액수를 이와 비교하면 8%에 불과하며, 道庫捐款에서 지원한 액수는 銀 221,975량, 錢 85,805,979 文(銀으로 환산하면 약 57,200 兩)[92]으로 회방국에 지원한 액수를 이와 비교하면 약 61%에 달하고 있다. 이는 道庫捐款에서 회방국에 지원하는 비중이 다른 군영에 지원하는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가리킬 뿐 捐款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반드시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蘇松太道를 통해 상당한 비중의 연관이 회방국에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20여개나 되는 捐局을 설치하여 상인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해 가는데 회방국이 일조를 한 셈이지만, 회방국 경비의 규모나 지출항

89) 「江海關徵收稅鈔正款帳冊」(1859.1-1862.11), 『吳煦檔』(7), pp.91-115.

90) 「上海各捐局捐款收解帳冊」(1859.7-1862.11), 『吳煦檔』(7), pp.136-203. 그러나 상기 기간 중 道庫에 어느 만큼의 捐款이 들어갔는지 구별하기 곤란하게 되어 있다.

91) 「吳煦在蘇松太道任內動放松滬各營軍需銀錢米石冊」(1860.2-1862.11), 『吳煦檔』(7), pp.240-3 참조.

92) 이는 銀錢比價를 1:1500으로 계산한 것이다. 동치 원년의 은전비가는 1:1400에서 1:1600에 걸쳐 있다. 「上海縣摺報銀米市價」(1860.3-1862.12), 『吳煦檔』(7), pp.269-70 참조.

목의 문제점은 얼핏 눈에 띄지 않는다. 이홍장이 태평천국이 진압된 후 그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회방국의 철폐를 말했을때,[93] 문제점은 재정적으로는 月糧과 주거지 임대료, 인건비가 매우 많았다는 정도였지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局董의 부패 등을 제기하지는 않았었다. 이홍장에 의하면 회방국은 시세가 위박하여 부득이 세운 임시방편의 계책이었으며, 군대의 효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별 성과가 없어서 (이홍장이) 상해 도착 후 몇 달이 지나자 회방국 原紳인 馮桂芬·潘曾瑋 등조차 撤局을 요청했을 정도라는 것이다. 영불군사들은 상해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홍장은 말하자면 경비문제도 문제려니와 군대의 효용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상해관신들이 회방국의 철폐를 이홍장에게 건의했다면, 그들이 회방국의 성립 이전에 보였던 영불군사에 대한 신뢰도에 비하면 너무 대조적이다. 사실 영국군의 자신감에 찬 오만함은 회방국을 주지하던 吳雲·顧文彬·潘曾瑋·應寶時 등에게 이미 인식되어 있었다. 가령 이들은, 윤선만 있으면 적은 두려워 오지 못할 것이니, 대군이 접근한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을 때만 공격할 것이라면서, 과장하여 보고하지 말라는 영국의 McLane영사의 말을 인용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94] 물론 노골적인 불만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대군의 적이 아니면 가능한한 출전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해관신들의 태도는 이홍장이 이들에 대해 "陰으로 中外會剿의 논의를 주지하기 때문에 洋人에게 아첨하지 않는 자가 없다"[95]든가, 吳煦와 楊坊 및 회방국관신의 외교지술은 "지나치게 비굴하고 아첨한다"[96]는 초기의 평가와는 다른 면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 인용한 陳錦의 회방국에 대한 비판은 중국병사의 대우에 비해 너무 좋다는 것이고, 그들의 요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었는데, 이는 회방국의 성립과정이 그러했듯이 어쩔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성격의 것이었다. 당시 유일한 財源이었던 上海도 餉源이 날로 고갈되어, 가령

93) 「上海裁撤會防局摺」, 1866.2.4, 『李文忠公全集』 奏稿 권9, 71a-72b.
94) 「吳雲顧文彬潘曾瑋應寶時致吳煦函」, 1862.2.7, 『吳煦檔』(2), p.251. 동 1862.2, p.251 도 참조.
95) 「復曾沅浦方伯」, 1862.4.23, 『李鴻章全集』 朋僚函稿 권1, 17b.
96) 「上曾相」 1862.4.13, 『李鴻章全集』 朋僚函稿 권1, 10a.

周騰虎는 吳煦에게 이미 20여개의 釐捐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새로운 釐捐으로서 빈부의 차에 따라 100량에서 10량에 이르는 '戶捐'을 설치하라고 제시하고 있고,[97] 陳錦 자신도 날로 軍餉을 낭비한다고 야단맞고 수입을 계산한 후 지출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계산할 수입이 없어 새로이 夷餉을 전담할 會防捐을 추가로 설치하기도 하였다.[98] 한편으로는 상승군 및 西兵에 대한 포상규정을 개정하여 그 액수를 대폭 삭감하고 있기도 하다.[99] 그렇기 때문에 상승군의 공로를 인정하던 이홍장도 1863년에 가서는 재정적 이유와 날로 교만해져 간다는 이유를 들며 정돈을 주장[100]하는 형편이었다. 회방국을 주도하던 신사들은 이러한 곤궁을 절감하면서 서양인들의 교만함을 감수해왔던 것이다. 이제 省城이 회복되어 감으로써 Burgevine 사건으로 吳煦·楊坊이 바뀜에 따라 會防局도 더욱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다.

3. 상해관신의 차병조초론 — 馮桂芬을 중심으로 —

마지막으로 상해관신중 대표적인 借兵助剿論者 중의 하나인 馮桂芬의 논리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풍계분은 소주신사로서 중국번이 이홍장의 회군을 上海로 파견할 때 上海신사들이 추진한 차병조초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홍장의 신임을 얻고 막료가 되어 蘇常일대의 용병을 도운 인물이다. 우선 그는 「敵可滅夷不可滅」이기 때문에 국가는 夷務가 제일 要政이고 초적은 그 다음이라고 한다. 따라서 화의가 성립한 이상 열강에게 誠信으로 대해야 할 것이라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百國이 탐내는 곳이지만 러시아·영국·미국이 상호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목전은 반드시 무사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만약 "自强"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장차 천하만국의 漁肉이 될 것이라고 함으로써 열강에 대한 성신과 자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101] 그의 이러한 대외인

97) 「周騰虎致吳煦函」, 1862.5, 『吳煦檔』(2), p.332.
98) 陳錦, 「松滬從戎紀略」, 『簡輯』(2), pp.210-11 참조. 첫달에 4 萬金을 거두고 있는데 모든 물건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따라서 釐金局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비난이지만 「상인을 병들게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을 정도로 가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만큼 이 釐捐에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도 중국상인뿐만 아니라 외국상인들도 대상으로 삼아야 했다.
99) 「吳煦上李鴻章稟」, 1862.5.17, 『吳煦檔』(2), p.337.
100) 「李鴻章薛煥奏整頓常勝軍片」, 1863.1.28, 『吳煦檔』(1), pp.96-7.

식은 러시아와 프랑스가 조초를 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는 '利多害少' 하며, 이를 반대하는 자는 夷情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借夷兵' 코자 한다면 먼저 그들에게 "異志"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제이들에게 이지가 없을 수 없지만 목전의 수년내의 일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그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洋夷들이 조초를 희망하는 이유를, 군향을 100만량 정도 보충받을 수 있어 官에 이롭고, 수년동안 역적을 몰아내어 이(약탈품)를 차지할 수 있어 兵에 이로우며, 무역이 복구될 수 있어 상업에 이롭고, 성사된 후 원근에 자랑하여 영예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일 뿐이라고 하여 그들의 '異志'를 부인하고 있다.[102] 물론 이 논설은 1860년말 프랑스와 러시아의 조초제의시 전개되었던 논쟁과 관련될 것이다.

이러한 대외인식은 따라서 차병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借兵은 중국에서 옛날에는 드문일이었지만, 諸夷들에게 있어서는 요즈음 늘상 있는 일이라면서 논자들은 宋이 元兵을 빌고, 명이 淸兵을 비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하고, 鬼를 門안에 끌어들이는 것이라 하나, 이 또한 사리에 심히 맞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요구가 한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복구한) 성을 계산하여 일정한 액수를 정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 하고 있다.[103] 요컨대 논자들이 우려하는 폐단이 장차 있다면 차병하지 않아도 역시 있을 것이고, 없다면 차병해도 없는 것이니, 이는 夷情을 모르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借人借器에 드는 비용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고 招勇은 쉽지만 거느리는 자를 뽑기가 어렵고, 聚勇은 쉽지만 散勇이 어려운 것이니, 이는 본래 流弊가 많은 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금일의 세는 위급하니 蘇常·金陵 일대가 점령될 것이고 적과의 대치가 오래면 매년 軍餉이 2,3백만은 들 것인데, 금일 이미 재정이 부족하고 병사도 부족하니 적을 언제 숙청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며, 동남지방은 財賦가 무거운 곳이고, 神京은 兵食의 原本이니, 그냥두면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여 차병의 불가피함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用夷는 본디 常道가 아니지만 이를 쓰는 것은 '權宜之策'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여기에서 馮은 用夷의 2가지 편리한 점을 들고 있는데, 첫째는 上海·松江에서의 성과를 헤아릴 수 있어

101) 馮桂芬, 「善馭夷議」, 『校邠廬抗議』, 74b-77a.
102) 「借兵俄法議」, 『校邠廬抗議』, 97a.
103) 同上, 97b.

서 일정한 기한내에 일을 완결할 수 있다는 점, 둘째는 군사비용은 먼저 승인하고 나중에 보상한다면, 4郡이 매년 5백만량을 잃고 있고, 淮河의 鹽課도 3,4백만냥을 잃고 있으니 이로써 보상하면 이익이 있을지언정 손해는 없다는 것이다.[104]

풍계분의 이러한 논리는 대체로 상해관신들의 논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열강의 '異志'를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당장의, 혹은 수년내의 일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自强"에 노력한다면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양이들이 조초하려는 의도를 정확히 인식하면서도 그들을 誠信으로 대한다면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니, 불가피한 폐단을 감수하고라도 동남지방을 수복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논리이다. 이렇게 보면 이들의 논리는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주권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의 '자강'을 강조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적극적 방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Ⅲ. 地方大臣과 朝廷의 態度

1. 曾國藩과 李鴻章의 態度

앞서 살펴보았듯이 上海官紳의 중국번의 湘軍에 대한 열망이 이홍장·좌종당 등 태평군 진압 경험이 풍부한 인적자원과 군사역량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것은 두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열강의 눈으로 보아도 당시 침략자의 "以華制華"의 수단에 충당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상군의 세력은 지역적으로 호북·강서·안휘에 떨어져 있어 상해와 강절 연해지구에 당장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한편으로 曾國藩으로서는 청정이 정식으로 비준하기 전에 경솔히 움직여 자신의 정치적 지위와 이익에 손해를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해관신의 요청에 쉽사리 응할 수 없었다.[105] 그렇다고 자신이 상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었기

104) 「借兵俄法議」, 『抗議』, 97b-98a.
105) 于醒民, 1987, pp.427-8 참조.

때문에 상해신사들의 借師助剿 승인 요구에 무모하게 반대할 입장도 못되었다. 더구나 상해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증과 친밀한 周騰虎가 曾에게 이 계획을 지지할 것을 충고해왔기 때문에[106] 상해와 영파에만 참가한다면 그들의 활동에 대한 궁국적인 책임을 맡을 용의마져 있음을 밝힘으로써 借師助剿 요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曾國藩은 상해와 영파의 방어에만 서양군사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 내지의 조초는 원하지 않았다. 가령 潘曾瑋에 대한 답신에서 상해 방위에 참여할 借兵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소주·상주·남경의 탈환을 위한 借兵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영파나 상해와 같은 개항장은 양인과 우리가 이해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함께 싸우고 함께 지켜야"하지만, 소주·상주·남경과 같은 내지에 借師助剿를 받는다면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후환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원조는 해안지역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107] 吳煦에의 답신에서도 여러 차례 답장을 보내 거듭 자신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상해방어와 寧波의 탈환을 위한 借師에는 동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용의가 있지만 소주·상주·남경의 공격을 위한 借師는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薛煥에의 서한에서도 거듭 그의 기본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고 이들 상해관료외에 周騰虎에게도 같은 내용의 답장을 보내고 있다.[108]

이렇듯 借師助剿를 인정하되 상해 등 개항장에 국한시키려는 증국번의 태도는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 것인가. 그것은 曾國藩이 한편으로는 李의 淮軍이 상해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寧波上海皆系通商碼頭, 洋人與我同其利害, 自當共爭而共守之"라 하여 개항장에서의 공동의 이해관계를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서양 諸夷중 영국이 가장 "교활"하다고 보았기[109] 때문일 것이다. 남경 등 내지의 조초에 따른 장기간의 정치적 위험이 군사적 이익을 쉽사리 능가한다고 본 것이다. 예부터 이족의 도움은 항상

106) 「周騰虎致曾國藩書」, 『簡輯』(6), p.218.
107) 「曾國藩致潘曾瑋函」, 1862.1, 『吳煦檔』(2), p.182.
108) 「曾國藩致吳煦函」, 1862.2.24, 『吳煦檔』(2), p.268; 靜吾·仲丁 編, 『吳煦檔案中的太平天國史料選輯』, 北京, 1958, pp.79-81; 『曾文正公書札』, 권17, pp.29-30; 『曾國藩未刊信稿』, pp.27-28, 35, 56-57; Wang, pp.571-2.
109) 『始末』(咸) 권71, 咸 10. 11. 25, no.2734, p.2668.

예기치 못한 요구를 수반한다는 것이다.[110] 또한 당이 위그르 군을 이용하였지만 중국군과 합동으로만 사용되었는데 현재는 洋人이 남경과 蘇常을 진공해온다 해도 우리한테는 會剿할 군사가 없다는 것이다. 비유컨대 과거시험을 보는데, 글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남에게 윤색을 부탁한다면 그래도 말이 되지만, 글을 전혀 쓸 줄 모르면서 대리를 들여보낼 수는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111] 어디까지나 내지의 초멸은 정부군이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曾은 상주문 및 恭親王에게도 私信을 보내[112] 그의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데, 중의 정책은 조정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조정은 영국에 인도병사를 보낼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속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113] 이러한 曾의 견해는 조정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데, 가령 文格(湖南巡撫, 1861.8.29)[114]이라든지, 앞에 살펴본 馮桂芬,[115] 曾協均(河南道監察御史)[116] 등은 중국번의 상해방어에만 국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曾의 내지조초 불가 입장은 앞에서 살폈듯이 사실 영국의 정책에서도 그다지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간섭'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以華制華' 정책을 쓰면서 군대의 지휘권을 갖는다든지 혼성부대를 편성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령 열강은 曾國藩과 李鴻章에게 그들의 이러한 계획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그들의 중국인 통역과 군사장교를 거듭 보내고 있는데, Stavely장군은 曾에게 태평군의 진압을 위해 중국군 1만 2백명을 영국장교들의 지휘하에 편성, 남경·소주 및 절강을 탈환하고자 하는 상세한 계획에 대해 수락하기를 요청하였으나, 曾은 總署에 상의해야 된다고 완곡히 거절하고 있다.[117]

---

110) 『始末』(同) 권4, 1862.3.4, 28a-29b; Mary C. Wright, *The Last Stand of Chinese Conservatism, The T'ung-Chih Restoration, 1862-1874*, Stanford Univ. Press, California, 1957, p.218.

111) 「籌議借洋兵剿賊摺」, 1862.4.22, 『曾國藩全集』 奏稿 권4, No.0983, pp. 2154-6; 『始末』(同) 권5, 1862.5.5, 31b-33.

112) 「曾文正公書札」, 권18, pp.25-26.

113) Mary C. Wright, p.218; Wang, pp.572-3.

114) 『始末』(同) 권1, pp.13-14.

115) 「減兵額議」, 『校邠廬抗議』 권2, pp.64-5 참조.

116) 『始末』 권5, 58b, 1862.4.28 참조.

117) 「曾文正公手書日記」, 권3, pp.1529-30 및 Wang, pp.291-2 참조.

그러하기에 Bruce는 공친왕에 분개조로 불평을 하면서 "외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상군과는 협동이 불가능하다. …… 그들의 존재는 태평군의 존재 만큼이나 위험하다"[118]고 하고 있다. 이는 외국군은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해방어를 돕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소주·상주 회복을 위해 돕는 것은 불가하다는 중국번의 확고한 입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Bruce는 청조에 보다 확고한 결단을 내리게 하려 노력하였지만, 恭親王도 "중국은 스스로 항구를 지키려 노력할 것"이라 거부하고 있는데[119] 이는 중국번의 완강한 반대 태도에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曾이 아니었다면 恭親王은 그와 서태후정권의 성립과정을 보거나 1860년 러시아와 프랑스의 조초요구시 영국의 간섭으로 실패한 사실을 상기하면 영국의 압력에 굴복했을 지도 모른다.[120] 이렇게 보면 열강이 내지 조초를 하지 않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중국에서의 유일한 군사실력자 曾의 반대는 최대한의 간섭효과를 확보하려는 열강의 노력에 제동을 걸게 한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중국번은 열강의 내지조초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조정이나 지방대신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淮軍과 함께 상해에 파견된 李鴻章의 경우도 曾과 마찬가지로 외국군의 蘇常 및 남경으로의 공격을 원치 않고 있었다. 이는 우선 李와 曾의 관계로 보아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양인에게 功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의 병력으로 '大功'을 이루려는 의도와 관련될 지도 모른다.[121] 李가 상해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영불군은 상해 주변지역에서 전투에 가담하고 있었는데 曾과 마찬가지로 李도 嘉定 등의 주변지역까지 내지로 간주하여 이에 반대하고 있었다. 가령 상해 도착후 2주일이 채 안되어 Hope는 이홍장에게 태평군에 대한 연합공격을 타협하려 하였는데, 李의 문의를 받는 曾은 李에게 본래의 정책을 따를 것을 충고하여, 회군의 임무는 외군과 함께 상해방위에 있지 내륙의 탈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122] 李는 이렇게 증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지만 李의 경우도 외국인에 대한 의존에

118) FO. 17/373, Peking, 1862.7.8.
119) FO. 17/370, Bruce to Russell, 1862.6.22, Teng, p.315 참조.
120) Teng, p. 316 참조.
121) 胡繩, 『從鴉片戰爭到五四運動』, 上, 上海人民出版社, 1982, p.305.
122) Wang, p.573.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가령 중국번에의 서한에서 아무리 군사적 상황이 급박하다 하더라도 유럽인에 군대요청을 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치욕적인 일이고 그들을 더욱 오만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여[123] 독자적 행동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李는 열강의 군사력과 군사기술을 이용하려 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독단적인 권한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북경의 어느 대관보다도 명백하게, 열강의 권한 잠식을 국내의 어떤 반란보다도 두려워 하고 있었던 것이다.[124] 반면 열강은 李鴻章 및 曾國藩을 설득, 통제하려 하였는데, 그것은 가령 영국군 통역자가 이홍장의 군영에 와서 嘉定공격을 재촉하여 거절당하자 분개심과 경멸에 가득차 나갔다든지,[125] Bruce도 恭親王에게 상해에서 중국군을 지휘하는 자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든지[126] 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열강은 李가 "大權을 독점한다"고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다.[127] 李는 "會防不會剿", 즉 洋兵은 상해에서 "會防"만 할뿐이지 蘇州·杭州·常州 등 상해를 벗어나는 지역에 들어가 "會剿"하지는 못하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려 하고 있었을 뿐만아니라,[128] 나아가 會防도 會防局의 철폐를 주장하고 오랫동안 蘇省의 '慇患'이었던 常勝軍까지 해산함으로써 매듭을 짓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태평군의 진압이 성공되어 가고 있고, 회방에 따른 경비가 막대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처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근대적 군사개혁의 추진이라는 의도와도 맞물린 것이기도 했다. 상승군을 해산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淮軍을 최소한 상승군과 어깨를 겨룰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춘 후에야 가능하다고 보고 군사개혁을 시도하는 것이다. 군사개혁의 여건은 물자·자금·인원의 면에서 유리했고, 또한 楊坊 등 관신에 의해 이미 초보적 군사개혁이 진행되고 있어 상승군을 해산할 때 회군은 "이미 洋兵과 맞먹을 수 있다." "상승군은 攻剿가 우리 (淮)軍만 못하다"고 자처할 정도로 개혁되고 있었다.[129] 이 군사개혁은 洋務運動의 "師夷長

123) 「上曾相」 1862.9.8, 『李文忠公全集』, 朋僚函稿 권1, 54a
124) Bland, *Li Hung-Chang*, London, 1917, p.46.
125) 「上曾相」, 1862.4.23, 『李文忠公全集』 朋僚函稿 권1, 15.
126) FO. 17/371, Bruce to Prince Kung, 1862.6.28, Teng, pp.314-5.
127) Hake, *Gordon in China and the Soudan*, 1896, 『太平天國史料譯叢』 제1집, 1954, p.208.
128) 「復喬鶴儕都轉」, 1862.5.1, 『李文忠公全集』 朋僚函稿 권1, 22-3.
129) 「程學啓請恤摺」, 1864.4.26, 『李文忠公全集』 奏稿 권6, 37-8.

技"의 서막이었다.

이홍장의 주권의식의 또다른 예는 주지하듯이 Lay Osborn 함대사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외인에 의한 훈련 계획에도 반대하고 있다. 청조는 이미 Bruce의 재촉에 의해 영불 장교에 의한 상해에서의 훈련계획을 總署를 통해 상유로 허가 받고 있었는데(1862.6), 李는 마지못해 설환의 1000명을 영국에, 600명을 불에 넘겨주었었다. 그러나 李는 총리아문에 그러한 계획이 청조의 권위를 점차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계획을 확장하지 말 것을 청원하고 있는 것이다.[130]

이렇게 보면 이홍장의 주권의식은 증국번보다 못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그 일단은 또한 앞에 인용했듯이 그가 상해에 왔을 당시 상해관신에 대해 내린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물론 李와 상해관신 세력은 점차 결합하여 이후의 借師助剿 내지 양무운동의 전과정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결합은 李 등 회군계 군벌관료와 상해·강절 매판관신의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홍장으로서는 상해에 발을 붙이려면, 그리고 태평군을 격퇴하고 양병을 "駕馭"하려면, 결코 이들 매판 관신의 지지와 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가령 李는 "상해에서는 이들 巨富를 버리고는 손을 댈 수가 없다."[131] 혹은 吳煦·楊坊 등에게 "諸君子와 아픔을 같이하는(痛痒相關)" 사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132]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巨富"가 없었다면 차사조초 속에 포괄되어 있는 洋務人員도 없었을 것이고 순탄하게 차사의 대업을 主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巨富에는 해관의 관세도 포함되어 있었음은 물론이다. 실제로 많은 상해·강절 신사가 李의 집단에 들어가고 있는데, 예컨대 吳煦·楊坊·馮桂芬을 위시한, "中外會防"을 처리하고 洋槍隊를 통제하는 등의 借師업무를 맡은 구성원은 대부분 李의 휘하로 들어갔다. 吳煦와 楊坊은 차사가 끝났을 때에도 Burgevine 사건을 처리한다든가, 常勝軍 1,500명을 감축하는 등 여러 차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133] 이렇듯 借師

130) Kuhn, 'The Taiping Rebellio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10-1, p.307; Liu, 'The Ch'ing Restortion', *ibid*, p.429.

131) 「復左季高制軍」, 1864.6.11, 『李文忠公全集』 朋僚函稿 권5, 15-16.

132) 「復吳曉帆方伯」, 1862.3.14, 『李文忠公全集』 朋僚函稿 권1, 7頁.

133) 차사조초 시기 李의 집단에 들어갔거나 이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비교적 많은 관계가 있던 上海·江浙 출신의 인사는 대체로 221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

助剿 과정을 통해 이홍장의 철저한 주권의식과 개혁의지에 상해관신들의 富가 결합되어 이후 양무운동 출발의 기반을 형성한 것이다.

2. 恭親王의 態度

마지막으로 공친왕과 청조의 借師助剿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북경조약과 이듬해의 신유정변으로 대외협조정책이 추구되던 상황에서 借師助剿를 승인할 것은 당연한 추세라 할 수 있다. 더구나 1860년 말 경의 프랑스와 러시아의 조초요구에 대해서 공친왕은 이를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었던 만큼 이제 영국이 의향만 있다면 공친왕으로서는 기꺼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간다. 당시 열하에서 肅順일파에 둘러싸여 있던 咸豊帝는 1861년 1월 24일의 上諭에서, "양이로부터 借兵하여 剿賊하는 것은 폐단이 매우 많아, 스스로 눈앞의 小利를 탐내어 끝없는 후환을 끼칠수 없다"[134]고 하여 '借師'가 통치지위에 대해 미칠 위험을 심히 두려워 하고 있었지만, 가령 1861년 5월 아직 신유정변이 일어나기 전에 공친왕은 영국이 태평군과 '不相犯之約'을 맺었다는 말을 듣고도, 영불을 달래온 이래로 목전은 그래도 안정을 칭하니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듯하다면서, 따라서 마땅히 이 때를 이용하여 와신상담, '中外同心以滅賊爲志'해야 할 것[135]이라고 상주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유정변 이후인 1862년 1월 13일의 上諭에서 "상해는 통상의 요지이니 마땅히 중외가 함께 保衛해야"하고, "영법 양국이 화약을 교환한 후 피차가 모두 誠信으로 서로를 믿으니, 이번 상해에서의 幇助剿賊은 더욱 그 진심으로 和好한 것이고 友邦之宜를 다한 것"[136]이라고 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증국번과 설환에게 상해관신으로 하여금 대규모 借師를 즉각 실행토록 督飭하고 있다. 이어 이미 설립된 상해회방국에 관한 설환의 奏報와 상해관신 공동명의의 청원서를 받은 청조는 2월 8일, "該紳 등

다. 그중 李의 양무사무에 중요한 조수는 16명(沈保晴·李金鏞·楊宗濂 등), 중요 양무관료·양무인원은 41명(錢鼎銘·王凱泰·郭柏蔭 등), 양무사업을 도운 자 103명(朱其昂 형제, 經緯 부자, 徐潤 등), 李가 창립한 신식 육·해군의 인재가 된 자 5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于醒民, 1987, pp.430-2 참조.

134) 『始末』(咸) (8冊) 권72, 1861.1.24, No.2757, p.2699.

135) 『始末』(咸) 권79, 1861.7.7, No.2953, p.2914.

136) 『始末』(同) 권4, p.3.

이 일컫는 바, 두 가지 害가 서로 형세를 이루고 있을 때는 그 가벼운 것을 取한다는 말은 확실히 식견이 있는 말이다", "설환은 즉시 전에 청원을 올렸던 각 신사와 함께 영불 양국과 더불어 신속히 상의하여 서둘러 처리하라. 단 초적에 도움을 준다면, 짐은 반드시 멀리서 통제하지는 않을 것"[137]이라 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중국번에게 군대를 파견할 것을 누차 지시하고 있다. 이에 "借師助剿"는 정식으로 청조의 국책으로 선포되고, 上海官紳은 "遙制"를 받지 않는 대권을 부여 받는 것이다.[138] 말하자면 청조의 借師助剿승인은 신유정변 이후 이미 결정된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恭親王(朝廷)은 曾國藩과 마찬가지로 외국군의 내지 조초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1862년 6월 23일의 상주문에서 외국군의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를 네 가지 들고 있는데, 첫째는 중국군은 외국군의 기민함에 적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웃음을 살 것, 둘째, 외국군에 대한 경비가 너무 많이 들 것, 세째, 외국군은 행동이 무모하고 성급하여 명령에 따르려 하지 않을 것, 네째, 중국군은 외국군이 점령한 도시에 주둔할 수 없을 것[139]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 점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借師助剿는 주객이 전도되어 후환이 반드시 많을 것"이라 하여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점은 거듭된 上諭에서도 외국군대가 비록 상해에서 잠시 도와주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주력은 중국군에 두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인과 함께 거주하는 상해와 외인의 深入을 막아야 하는 蘇常은 다르기 때문에, 대규모 차사조초는 不可하다는 것이다. 조초는 허용되었으나 영불군 존재의 위험성은 결코 잊혀져서는 않되는 것이었다.[140] 아울러 상금이 너무 과분하여 교만한 마음을 키운다든가, 이홍장에게 太倉 일대를 공격하게 하여 적뿐만이 아니라 영불군이 두려워하도록 한 것,[141] 회방국을 양인이 주지하지 못하게 하여 "妄作妄爲"하지 못하게 하도록

137) 『始末』(同) 권3, p.50.
138) 于醒民, 1987, pp.429-30.
139) 『始末』(同) 권4, pp.13-16.
140) 董守義, 『恭親王奕訢大傳』, 遼寧, 1989, pp.234-5; Mary C. Wright, p. 218.
141) 『始末』(同) 권5, 51b-52a.

한 것[142]도 그러한 인식의 발로라 볼 수 있다.

또한 Bruce가 공친왕에게 Ward에 의해 중국군이 조직되고 이끌어진다면 중국은 스스로 구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양창대와 같은 중국군대를 조직하여 서방군관의 훈련을 받게 하라고 제안했을 때 공친왕은 반대하고 있다든지,[143] 이후 Ward의 후임으로 미국의 모험군인 Burgevine을 배척하고 이홍장의 천거에 따라 Gordon을 선택함으로써 상승군에 대한 훈련과 지휘는 외국인이 계속 맡지만, 재정·보급·일반적인 전략은 중국인이 계속 통제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그러한 인식의 발로라 할 것이다.[144] 다만 공친왕은 Gordon과 같은 책임있는 외국인은 협동하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갖기도 했지만 Lay Osborn함대사건은 공친왕으로 하여금 외국인의 동기에 대해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145] 그리하여 1865년 11월 Hart의 중국내정 및 제반 개혁안 제의 및 Wade의 그것에 대해 대부분의 지방대관과 함께 그 저의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146]

이렇게 보면 공친왕을 중심으로 한 청조에서도 借師助剿에 대한 태도에서 국가의 주권개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恭親王은 Lay-Osborn함대를 曾國藩의 지휘하에 놓는 것에 냉담했다는 점이다.[147] 이는 비록 당시 중국번의 내지조초에 대한 반대론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었고 공친왕도 이에 따르고 있지만 공친왕으로서는 한인 중국번 세력의 확대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겠다.

---

142) 董守義, 위책, p.236.

143) H.B.Morse,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Chinese Empire*, Vol.2, *The Period of Submission 1861-1893*, 1917, p.75 참조.

144) Grady, pp.173-4.

145) Grady, pp.174-7.

146) Grady, pp.179-81 참조. 공친왕의 평가에 대해서는 寶成關, 『奕訢慈禧政爭記』, 長春, 1990, pp.137-41 을 아울러 참조.

147) John L.Rawlinson, 'China's Failure to Coordinate Her Modern Fleet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lbert Feuerwerker ed., *Approaches to Modern Chinese History*, Univ. of California Press, 1967, p.112.

맺음말

借師助剿가 상해·강절 연해지구에서 발생한 이유는 그 곳의 특수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곳은 외국의 침략과 태평천국운동이라는 두 충격을 가장 직접적이고 민감하게 받은 곳으로서, 외국침략자들의 탐욕대상, 태평천국의 공격대상이 되는 전략요지였고, 반식민지화가 가장 심화된 지역이자 매판관신 세력이 발생하고 발전한 곳이었다.[148] 본고에서는 借師助剿와 관련된 제 세력들의 이에 관한 인식과 태도 — 특히 주권의식과 관련한 — 그리고 그들 상호간의 관계를 上海官紳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어디까지나 상해관신들이 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시기에 借師助剿論이 제기된 것은 1860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태평군이 상해주변인 江浙지구로 진격한 데 따른 상해관신들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청조가 이를 승인하고 열강도 중립정책에서 무장간섭으로 정책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861년 말에 일어난 신유정변이었다. 恭親王과 西太后에 의한 이 정변은 영국의 지지에서 부분적으로 힘입은 게 사실이고, 따라서 서태후 정권은 이후 대외협조정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열강도 조약상의 특권은 누리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자주적 태도를 견지했던 태평천국보다는 이 새로운 정권을 적극 지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상해관신들에게 있어서도 크게 고무적인 현상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상해관신들의 차병논의는 60년의 그것에 비해 그 치열함을 덜한다. 그것은 Ward의 양창대라는 형식을 빌어 열강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조초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위와 같은 전반적 사태의 흐름으로 보아 이제 조초는 시간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기에 와서 논의의 촛점은 助剿 여부가 아니라 內地助剿 여부였던 것이다.

借師助剿와 관련하여 열강이 취한 태도는 그러한 상해관신들이 열망하던 內地助剿로까지는 가지 않고 상해 등 개항장과 그 주변 지역만을 방어하되, 내지로의 조초는 중국군을 이용하면서(以華制華) 그 지휘는 열강이 맡는 常勝軍과 같은 형태를 취함으로써 최소한의 협조로 최대한의 이해관

148) 于醒民, 1987, pp. 436-7.

계를 확보하려 하고 있었다.

상해관신들은 열강, 증국번, 조정의 세 방향으로 각각 임무를 나누어 보다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먼저 열강과는 上海會防局의 설립을 성사시켜 놓고 이를 조정과 증국번에게 사후 승인을 얻는 형식을 취했다. 이들은 열강의 군사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蘇常 등은 물론이고 南京까지의 助剿를 강하게 원하고 있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대부분이 상해의 인근지역에서 도피해온 지주, 호상 등 부호였다는 계급적 이해관계에 기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를 살펴볼 때 반드시 주권의식이 결여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가령 馮桂芬의 경우와 같이 열강의 '異志'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위험은 목전의 혹은 수년내의 일은 아니라고 본 것이고, 불가피한 폐단을 감수하고라도 동남지방을 수복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急務라는 논리를 폈다. 오히려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自强'에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여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이후 양무운동과의 관련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1860년에는 반대의 입장을 표한바 있던 증국번의 경우 지리적으로 상해의 위기를 당장 구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되었기 때문에 助剿에 반대하지 못하였는데, 남경은 물론이고 蘇常 등 상해 주변지역까지 포함한 내지의 助剿는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曾은 諸夷중 가장 교활한 영국의 내지까지의 助剿에 수반되는 정치적 위험을 두려워 한 것이다. 이 주장은 조정뿐아니라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었고 결국 이 방안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당시 曾의 정치·군사적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려니와, 열강의 보다 적극적인 간섭 의도를 저지한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이홍장의 경우도 증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의 경우는 曾 못지 않게 확고한 주권의식을 갖고 있었다. 아무리 급박한 군사적 상황이라도 치욕적으로 유럽인에 군대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외국인에 의한 군사훈련도 반대하고 있었던 점, 열강에 비굴한 태도를 보인 상해관신들에 대한 비판 등을 보면 그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상해에서 借師助剿를 주지하게 된 李는 회방국을 폐지하고 借師助剿의 한 형태인 常勝軍을 결국 해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재원이 풍부한 상해에 대해 자기의 근거지로 확보하려는 李의 의도는 결국 借師助剿를 담당했던 상해관신들과 결합하게 되어 이후 李의 양무운동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조정 내지 공친왕의 경우는 1860년 러시아와 프랑스의 助剿제의가 영국에 의해 저지되고, 이듬해 신유정변을 겪고 난 이후에는 영국의 의사에 좌우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러한 가능성에는 공친왕의 대외인식의 변화를 전제로 두어야 할 것이다. 공친왕의 경우, 증국번과 마찬가지로 助剿의 범위를 내지가 아닌 개항장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1860년의 경우처럼 증국번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친왕은 助剿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어디까지나 주력은 중국군에 두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상해관신들에 의해 주장되었던 借師助剿는 그들의 요망대로 공식적으로 내지조초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는데 — 그러나 열강이 의도하던 '以華制華' 정책대로 그들의 직접적인 참가는 최대한 줄이면서 실제로는 상승군의 활동에서 보는 것처럼 내지조초까지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이는 증국번을 비롯한 이홍장과 공친왕 등 모든 계층이 갖고 있었던 명확한 주권의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상해관신들까지도 비록 내지조초를 바라고 있었지만 명확한 주권의식이 결여된 것은 아니었다.[149] 「夷不可滅」의 위험성도 잘 인식하고 있었다. 회방국의 운영이 비록 '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지만, 반드시 방만한 운영을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서양인들의 오만함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부득이'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풍계분의 말대로 차사조초의 결과 주권의 침탈이나 외국군의 성지나 토지의 점거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自强」의 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논문은 1989년도 울산대학교 교비 지원에 의해 연구된 것임〕

149) 吳煦는 아편(洋藥)세에도 內地 稅捐을 면제받기 위해 子口半稅를 적용해야 한다는 영국측의 주장에 대해, 공친왕에게 타협적 태도를 취하지 말도록 경고하면서 자신의 주체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吳煦致黃嶺山房主人函」, 1861.3, 「吳煦檔」(2), p.39 참조.